

|  |   |   |       |  |
|--|---|---|-------|--|
| 제 목  | 국 문   | 건강한 한국성인남성의 자가약물복용력에 따른 간기능 장애 발생여부조사   |       |  |
|  | 영 문   | Association of liver dysfunction with self-medication history in Korean healthy adult men   |       |  |
| 저 자<br>및<br>소 속  | 국 문   | 배중면 <sup>1</sup> , 박병주 <sup>2</sup> , 이무송 <sup>3</sup> , 김동현 <sup>4</sup> , 신명희 <sup>5</sup> , 안윤옥 <sup>2</sup><br><sup>1</sup> 충북의대, <sup>2</sup> 서울의대, <sup>3</sup> 울산의대, <sup>4</sup> 한림의대, <sup>5</sup> 삼성의료원   |       |  |
|  | 영 문   | Jong-Myon Bae <sup>1</sup> , Byung-Joo Park <sup>2</sup> , Moo-Song Lee <sup>3</sup> ,<br>Dong-Hyun Kim <sup>4</sup> , Myung-Hee Shin <sup>5</sup> , Yoon-Ok Ahn <sup>2</sup><br><sup>1</sup> Chungbuk Natl. Univ. <sup>2</sup> Seoul Natl. Univ. <sup>3</sup> Ulsan Univ.<br><sup>4</sup> Hallym Univ. <sup>5</sup> Samsung Hospital |       |  |
| 분 야  | 역 학   | 발 표 자   | 배 중 면 |  |
| 발표 형식  | 구 연   | 발표 시간   | 15 분  |  |
| 진행 상황  | 연구완료 ( V ), 연구중 (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   |       |  |
| <p>1. 연구 목적</p> <p>약물복용에 관한 엄격한 규제가 없는 국내 의료현실상, 각종 건강에 관련된 약물이 범람하고 있어 약물 오남용에 따른 심각한 약물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건강한 성인 남성에서 영양제, 한약을 포함한 자가약물복용에 따라 간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지를 코호트내 환자-대조군연구로 알아보았다.</p> <p>2. 연구 방법</p> <p>‘서울코호트’ 대상자중 (1) 1990년도 정기 건강검진의 혈청결과상 HBsAg이 음성이면서 AST, ALT 모두 40 IU/L 이하인 대상자 (2) 1990년도 입원진료청구 전산자료상 간질환을 포함한 각종 질병으로 수진받은 적이 없는 자 (3) 설문서 응답내용상 1991년 한해동안 각종 질병이 발생되어 해당 약물을 복용한 적이 없는 자 (4) 1992년도 정기 건강검진상 종합소견이 정상이면서 혈청검사상 HBsAg 음성이던 자로 국한하여 본 연구를 위한 새로운 코호트를 구축하였다. 2년간의 추적조사 결과 1992년도 검사치상 AST/ALT 모두 40 IU/L 이상이면서 1990년도 ALT/ALT 에 비하여 100% 이상 상승한 경우를 ‘간효소치 상승군’ (case group)으로 정하였고, 반대로 1992년도 검사치상 AST/ALT 모두 40 IU/L 미만이면서 1990년도 ALT/ALT 에 비하여 상승정도가 100% 미만인 경우를 ‘대조군’ (control group)으로하여, 약물복용과의 관련성을 카이자승법과 로지스틱 회귀법으로 알아보았다.</p> |   |   |       |  |

### 3. 연구결과

‘간기능치 상승군’ (n=30)은 ‘대조군’ (n=2,706)에 비하여 44세 이하가 많았고, 경제수준이 높았으며 보다 비만하였으나 교육수준, 직업, 가족력, 수술력, 방사선 촬영력, 침구이용력, 흡연 및 음주습관에서 차이가 없었다. 약물복용에 있어서는 종합비타민과 한약복용은 차이가 없었으나, 스쿠알렌/알로에 등의 건강보조식품복용력은 ‘간기능치 상승군’에서 유의하게 많았다. 단변수 분석에서 유의성을 보인 변수들을 보정하여 보았을 때도 건강보조식품 복용력은 여전히 통계적 유의성을 잃지 않았다.

### 4. 고찰

본 연구결과는 건강인이라 하더라도 ‘건강보조식품’의 임의 복용은 간기능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현재 ‘건강보조식품’의 사용이 급증하는 추세속에서 치료제가 아닌 보조식품으로써의 ‘건강보조식품’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임의 복용에 따라 어떤 부작용이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향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